

‘단’의 장래예언 내용에 등장하는 독사(창 49:16~18)와 모세의 구리뱀(민21:8~9)은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열 두 아들에게 장래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직 아들 단에게만 “여호와와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는 축복을 하고 있다. 다른 아들이 되는 르우벤이나 유다 그리고 요셉 등과 같은 아들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야곱이 다섯 번째 아들 단을 축복할 때에는 다섯 번째 순서를 일부러 무시하고 일곱 번째 순서에 가서 단을 축복한 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 단의 후손에서 일곱째 인을 떼는 마지막 천사가 나온다는 암시였던 것이다. 그리고 구세주만이 가질 수 있는 “심판권의 축복”을 단에게만 주는 동시에 단의 후손들이 ‘홀로코스트’와 같은 마귀의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을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표현함으로써 현재 단지와 민족이 되는 한국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야곱이 열 두 아들에게 장래 일을 예언하는 장면

뱀이 독사(毒蛇)라는 것이다.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장래 일을 예언하는 내용들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섯 번째 아들인 ‘단’에 대한 예언 내용에서 독사가 등장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49:16~18)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니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니 단의 말굽을 물러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니 단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 곧 구세주는 이스라엘 4대 선민 ‘단’의 혈통에서 출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초대 선민(選民)이며 야곱은 그의 손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곳이 이사야서(59:20)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59: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세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지전능(almighty)하신 존재로 알고 있다. 전지전능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가톨릭이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

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에 대한 장차 축복에 대해서도 어느 아들에게 장차 축복이 주어져야 한다고 직접 개입을 하신 것(이사과 야곱의 장자축복에 개입하셨음)으로 보아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야만 이를 수 있는 큰 뜻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한 뜻이 나타나 있는 곳이 방금 인용된 성경(사59:20)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구세주(救贖者)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죄인을 속죄금(贖罪金)을 구해서 석방시켜주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로써 구세주(救世主)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된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줄 구세주 즉 구세주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의 후손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시겠다고 구세주만의 권한 안에 있는 “심판권과 구원권”을 단에게 준다고 야곱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다. 단에 대한 예언 내용 중에 심판권과 구원권을 단에게 준다고 하여 실질적인 장자축복을 단에게 준다고 하면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요 독사(毒蛇)라는 이미지를 그 위에 덮어 씌운 이유는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과 같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는 구세주 역할로 탐바꿈해 놓은 곳이 바로 본문의 서두에 인용된 민수기 내용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줄 구세

주가 출현할 장자지파이므로 어느 아들에게 장자권이 임하였는지를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경전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기독교 등)에서 적(敵) 그리스도는 단지파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니 하나님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하였던 것이다.

왕 중 왕 되신 구세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대륙으로부터 뱀족이 뺨여 나온 모퉁이 땅에서 출현하신다

또한 아래에 인용되는 성경(이사야 41:1~9)의 내용이 그러하다고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41:1~9) 섬들이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 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 끝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예로부터 동방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을 일컫는데 서두에 ‘섬들이 잠잠하라’고 하여 섬나라인 일본은 제외시켰으니 모퉁이 땅인 우리나라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 왕들이 다 와서 굴복을 하게 되는 왕 중 왕인 구세주가 출현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4대 선민(초대선민) 아브라함에게 이어 2대 이상 그리고 3대 야곱과 4대 단이 장자축복을 받은 우리의 국조인 단군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살고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와 구리뱀”에 등장하는 독사(毒蛇)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는 구세주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이스라엘 민족의 제4대 선민이 되는 ‘단’의 장래예언 내용에 등장하는 독사(毒蛇)가 구세주를 상징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송사 정수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1>
“하늘의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마귀에게 점령되면 하나님 얼굴을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 것이다. 그럴 때는 ‘가로막는 마귀 뿌리제 뽑아서 박멸소탕!’하면 가로막았던 마귀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하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모님의 얼굴을 초초로 바라보고 사모하였으며 저 멀리서 영모님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기는 삶

생활 계획표를 짜보자

우리의 하루는 1,440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단 1%인 14분을 학습, 생각, 그리고 계획하는 시간으로 투자하자. 그러면 이 14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상에 놀라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꽤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상하고, 귀 기울였다. 그들은 혼잡한 시간을 떠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문제의 단편들을 모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하고,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귀 기울인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임스 보트킨이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립한 15:4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하루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나중에 4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미리 하루의 일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의 업무를 조직화한 사람은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나 막상 생활계획표를 짜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다. 그럴 때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순서와 관계없이 종이에 적어라.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일과표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구분하라. 그리고 업무적으로 우선 처리해야 할 일상적인 일부터 시간을 할당하라.

그렇지만 인상은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전

화가 걸려 온다든지, 상사가 급히 해오라고 하는 일이 있다든지,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온다든지 하는 긴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 계획표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긴급한 일이 발생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한 일은 즉시 처리해야 하는 일이지 만 대부분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긴급한 일에 쫓겨 하루를 마치고 나면 내가 오늘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아리송할 때가 많다. 그래서 일정 계획표를 잘 때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勘案)해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표를 너무 빡빡하게 짜지 않도록 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에 할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에는 자신이 꼭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있었지만 미래지향적인 자아완성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라.

일의 우선 처리순서는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일상적인 일이지만, 일의 중요도는 중요한 일(소중함의 일), 일상적인 일, 긴급한 일의 순서다. 일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자신에게 맞는 일과표를 짜보자. 그렇지만 계획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정계획의 반만 지켜도 대성공이다. 일정표대로만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2가지 정도의 일만 처리해도 성공이다. 15분 계획으로 하루 4시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노른자위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할애하여 일신유일신(日新又日新)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란다.*

유튜브 진지아롱TV



正道令の五大業績

全世界の人びとよ 韓國に注目しよう!!

大昔、人は神様だった。その世界は死が無く、涙も苦痛も無く、時間と空間の制約も受けず、「あなた」と「わたし」の區別も無かった。一つである神様の世界、喜びと幸福が満ち溢れ、善だけが存在する永生の世界だった。その世界から遠ざけられ、人びとは悪魔の姿に變えられ、いつしか故郷を忘れて、神様であった事すら知らずに過して居るのである。今、私達がその事を教え、再びその世界に導いて下さる救い主、正道令とも呼ばれる方が韓國に出現された。罪に死ぬ邪道ではなく、不義をさばき、生きて永生する正道に向って来るよう號令される正道令の出現である。

正道令が今日までに成し遂げられた偉業を確認してみよう。

- 1) 世界の共産主義を没落させた。
- 2) 韓國を襲う台風を防いでいる。
- 3) 韓國の梅雨を止め、水の災害を防いでいる。
- 4) 42年間連続の豊年を實現させている。
- 5) 韓國には決して戦争を起こらないようにしている。

これらの五大業績は、1981年に正道令が初めて出現された時の公約である豫言の言葉である。人間の力で絶対に不可能だと考えられて来たこれ等の出来事は、今日までこの世の誰が想像することが出来たであろうか。42年を経過した今、ただ一つの間違いもなく現実的に成就した事實に誰が反論否定できよう。これらの事は全人類に永遠の平和と幸福をもたらす爲に、最も必要な基本的作業であり、不滅の不死永生を成し遂げて、地上の樂園を建設する爲の礎石なのである.*

Jung-Do-Ryung and Five Great Achievements

Come and See!

These astonishing achievements that Jung-Do-Ryung(Victor in the Apocalypse) has accomplished!

He has

- 1. Demolished the Communism from this Earth.
- 2. Protected Korea from Typhoons.
- 3. Protected Korea from the rainy spell in summer.
- 4. Made Korea have abundant harvests for 42 years.
- 5. Prevented wars from occurring on Korean Peninsula.

These five great achievements mentioned above were the ones that Jung-Do-Ryung first proclaimed in

1981.

No one has thought these are possible as they are beyond man's ability. But these five works have been realized for the past 42 years. Practically these are the fundamental and essential basis for eternal peace and happiness for mankind.

Furthermore, these are the corner stone of eternity and the heaven on the earth for mankind. It has been said that if Jung-Do-Ryung appears, the paradise will be constructed. And this has been realized since 1981.*